

현안과 과제

■ 자영업자 진입-퇴출 추계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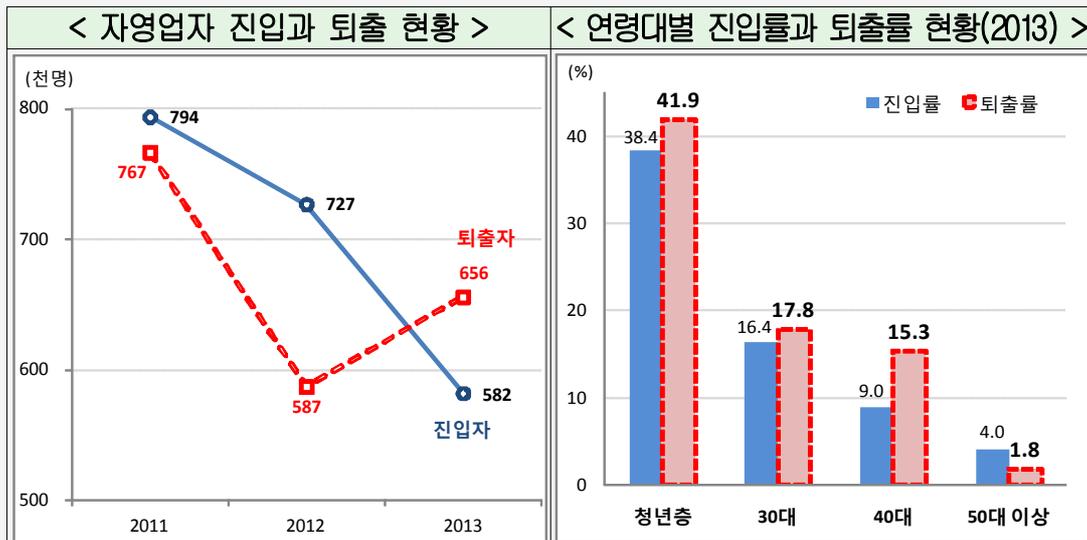
□ 자영업자 진입-퇴출 추계와 특징

■ 자영업자 감소현상

자영업자는 2000년 779.5만명에서 2014년 685.7만명으로 감소되었다. 총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도 2000년 36.8%에서 2014년 26.8%로 하락해 왔다. 정부는 다양한 자영업 창업자와 폐업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들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가 추계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영업 감소현상의 배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규 자영업 진입자와 퇴출자를 추계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 자영업자 진입-퇴출 추계와 특징

첫째, 자영업 퇴출자가 진입자를 초과하면서 역전하였다. 2011년과 2012년은 진입자가 퇴출자를 초과하였으나, 2013년 들어 퇴출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진입자를 초과하였다. 2013년에 자영업자 66만명이 퇴출하고 58만명이 진입하였다. 둘째, 40대 자영업 퇴출자가 29.7만명으로 전체 자영업 퇴출자의 45.3%를 차지하고 있어 자영업자 감소현상의 핵심이 되고 있다. 셋째, 청년층의 진입률과 퇴출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아, '자영업 高진입률 高퇴출률'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넷째, 1인 이상의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의 퇴출률이 10.6%로, 자영자(8.8%)보다 높다. 다섯째, 창업자의 49%가 직장에서 나와 창업한 임금근로자다. 특히, 30~40대 중년층의 '임금근로자→자영업 전환' 현상이 뚜렷하다. 여섯째, 자영업 퇴출의 주요한 요인은 '사업부진'이다.



■ 시사점

자영업 진입자 및 퇴출자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준비된 창업'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사업전환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사업부진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퇴출자 등 퇴출을 고려하는 자영업자의 유형별로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자영업자 감소현상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자영업자 규모와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자영업 진입-퇴출의 기초 통계가 부족하여 정책대상을 이해하기 어려움
 - (연구 배경) 고용호조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는 감소되고 있음
 - 자영업자는 2000년 779.5만명에서 2014년 685.7만명으로 감소
 - 총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00년 36.8%에서 2014년 26.8%로 하락
 - 향후에도 자영업자 감소현상이 지속되고, 자영업자 비중이 축소될 전망
 - (연구 필요성) 자영업 진입자와 퇴출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하여, 정책대상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상황
 - 정부는 다양한 자영업 창업자와 폐업자 지원책¹⁾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들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가 추계되지 못함
 - 자영업 진입자와 퇴출자를 추계하고, 이들의 특징들을 분석해야만 정책대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효율적인 정책들이 제시될 수 있음
- (연구목적) 자영업 감소현상의 배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규 자영업 진입자와 퇴출자를 추계하고 특징을 분석
 - (정의) 자영업자는 단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자,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 자영업체에서 보수 없이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됨
 - 통계청의 경우 자영업자를 고용주와 자영자에 한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국제적 기준인 OECD기준²⁾과 국회기준³⁾의 정의에 따라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을 채택함
 -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들도 본 정의를 채택해 사용해 옴⁴⁾

1)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장려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교육 확대, 자영업 과밀화 방지 등.

2) OECD(2010), "Factbook."

3) 국회예산정책처(2011.9),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경제현안분석 제65호.

4) 현대경제연구원(2012.7.),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경제주평 12-27, 통권 제498호.

현대경제연구원(2014.4.),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경제주평 14-14, 통권 58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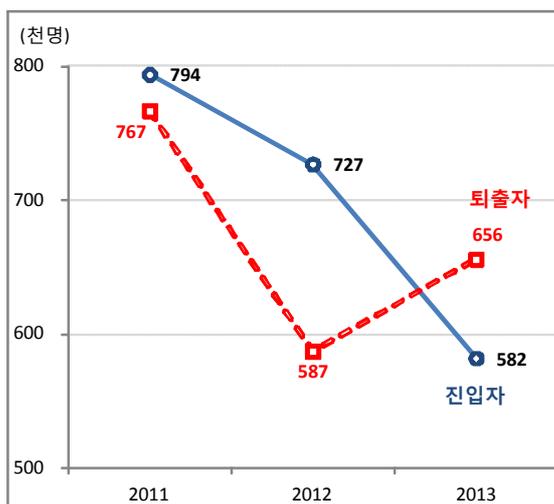
2. 자영업자 진입-퇴출 추계와 특징

(1) 진입자-퇴출자 추계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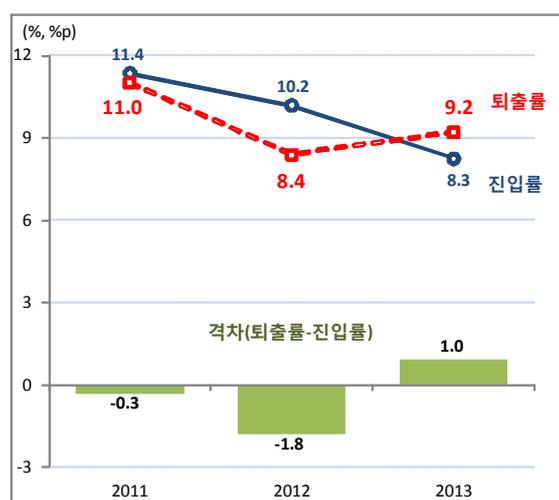
○ (진입자-퇴출자 추계) 자영업 퇴출자가 진입자를 초과하면서 역전

- (추계방법)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2010~2013년까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진입자와 퇴출자를 추계)
 - 자영업 진입자 : 최근 1년간 진입한 자영업자를 추계
 - 자영업 퇴출자 : 금년 자영업자 - (전년 자영업자 + 자영업 진입자)
 - 자영업 진입률 : 자영업 진입자/금년 자영업자 × 100
 - 자영업 퇴출률 : 자영업 퇴출자/전년 자영업자 × 100
- (추계결과) 2011년과 2012년은 진입자가 퇴출자를 초과하였으나, 2013년 들어 퇴출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진입자를 초과
 - 2012년 신규 진입한 자영업자가 72.7만명에서 2013년 58.2만명으로 감소되었으나, 퇴출자는 58.7만명에서 65.6만명으로 크게 증가
 - 자영업 진입률도 2011년~201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반면, 퇴출률의 경우 2012년 8.4%로 하락한 이후 2013년 9.2%로 다시 상승
 - 즉, 1년 동안 100개 자영업 중 9개 이상이 퇴출하고 있음
- 2011, 2012년에 자영업자가 과다 진입하고, 2013년에는 과다경쟁에 따라 본격적으로 퇴출되고 있다고 판단됨

< 자영업자 진입과 퇴출 현황 >



< 자영업 진입률과 퇴출률 현황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이용 추계.

5) 통계청은 2014년에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를 수행하지 않음.

○ (연령별) 40대 자영업자의 퇴출 심각

- 40대가 자영업자 감소현상의 핵심이 되고 있음

- 40대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중 25.6%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자영업 퇴출자의 45.3%를 차지하고 있어 자영업자 감소현상의 핵심이 되고 있음
- 퇴출률이 15.3%, 진입률이 9.0%로 그 격차(6.4%p)가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커 퇴출의 심각성을 시사해 줌

- 청년층의 '자영업 高진입률 高퇴출률' 현상 뚜렷

- 청년층 자영업 진입률(38.4%)과 퇴출률(41.9%)은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음
- 전체 자영업자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3.8%에 불과하고, 청년 자영업자 수(26.5만명)가 매우 작기 때문에 10.2만명 진입, 11.8만명 퇴출은 매우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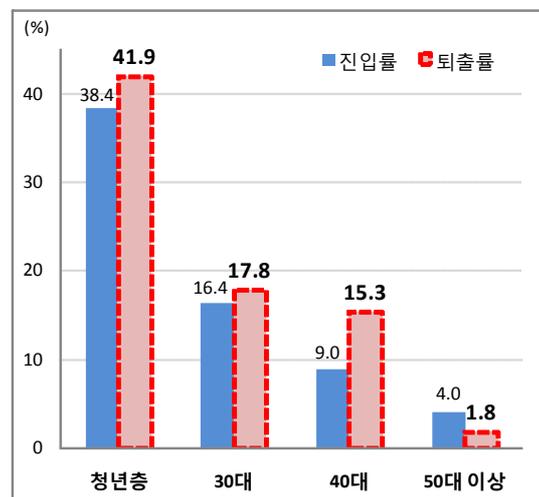
-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50대 이상의 경우 진입자는 줄고, 퇴출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50대 이상의 자영업 진입자는 2011년 21.6만명, 2012년 20.8만명, 2013년 16.3만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퇴출자는 2011년 2.8만명, 2012년 6.4만명, 2013년 7.1만명으로 점차 증가함

< 연령대별 진입자와 퇴출자 추이 >
(천명)

		2011	2012	2013
청년층	진입자	146	129	102
	퇴출자	135	142	118
30대	진입자	199	185	155
	퇴출자	324	154	171
40대	진입자	233	205	162
	퇴출자	279	228	297
50대	진입자	216	208	163
이상	퇴출자	28	64	71

< 연령대별 진입률과 퇴출률 현황(2013)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이용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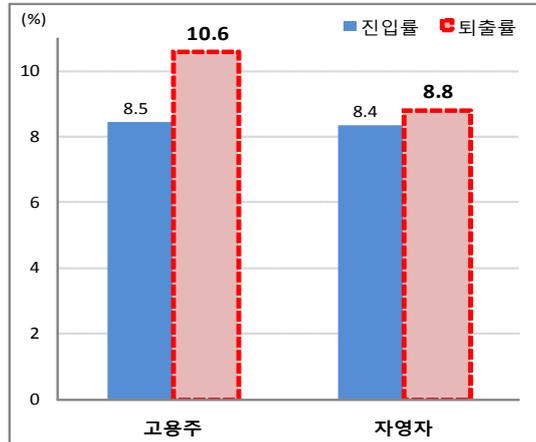
○ (종사상지위별) 고용주의 자영업 퇴출 뚜렷

- 고용주의 퇴출률이 자영업자의 퇴출률 보다 높음
 - 고용주의 퇴출률이 10.6%로, 자영업자(8.8%)보다 높음(2013년 기준)
 - 1인 이상의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고 있고, 사업 부진에도 인건비 등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어려움을 겪음

< 종사상지위별 진입자와 퇴출자 추이 > (천명)

		2011	2012	2013
고용주	진입자	184	149	127
	퇴출자	170	101	163
자영업자	진입자	465	453	355
	퇴출자	426	377	376
무급가족	진입자	145	125	99
종사자	퇴출자	171	108	117

<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진입률과 퇴출률 현황(2013)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이용 추계.

- 사업규모가 큰 고용주가 자영업자보다 경기부진 충격을 많이 받음
 - 인건비, 임대료, 원리금상환 등 고정적인 운영자금 지출액이 크기 때문에 경기부진 시 충격이 큼
 - 고용주는 상대적으로 창업규모가 큰 자영업에 주로 분포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5백만원 미만의 작은 규모에 집중적으로 분포
 - 고용주 가구의 평균 가계부채는 2013년 1.9억원이고 2012~2013년 동안 사업소득이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는 0.7억원에 불과하고 사업소득은 소폭 증가

< 종사상지위별 자영업 진입자의 창업자금 규모 분포 >

(%)

	5백만원 미만	5백~5천만원	5천~1억원	1억원 이상
고용주	8.7	41.7	32.8	16.8
자영업자	41.0	42.6	14.2	2.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이용 추계.

6) 자영업자는 단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 자영업체에서 보수 없이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다. 통계청의 경우 자영업자를 고용주와 자영업자에 한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OECD기준, 국회기준의 정의를 따름.

7) 현대경제연구원(2014.4.),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경제주평 14-14, 통권 585호.

(2) 진입자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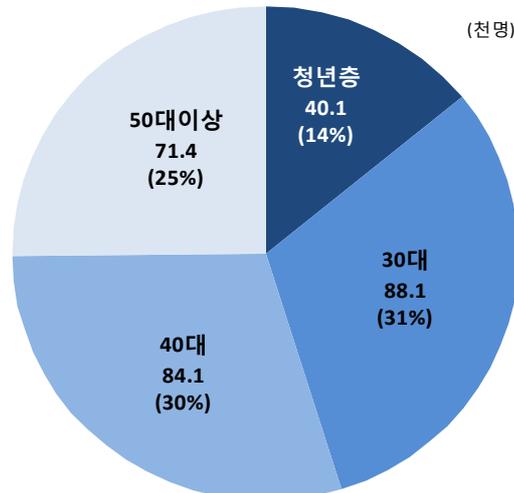
○ (진입자의 기존 종사상지위) 30~40대 샐러리맨의 자영업 전환 뚜렷

-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한 근로자는 30~40대가 주를 이룸
 -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된 진입자는 28.4만명으로 전체 진입자의 48.7%를 차지하고, 자영업자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여 신규 창업한 진입자는 13.2만명으로 22.7%를 차지
 - 특히,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을 창업한 진입자의 경우, 주로 30~40대 중년층에 집중되어 있음. 30대 8.8만명(31%)과 40대 8.4만명(30%) 분포
 - 30~40대 임금근로자가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창업을 시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판단됨
 -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50대 이상의 은퇴후 자영업 진입(7.1만명, 25%)보다 30~40대 중년층의 '임금근로자→자영업 전환' 현상이 뚜렷함
- 비취업자 16.6만명은 창업을 통해 신규취업자로 노동시장에 진입
 - 2013년 자영업 진입자 58.2만명 중 41.5만명(71.4%)이 기존에도 취업자였고,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비취업자는 16.6만명(28.6%) 임
 - 즉, 신규 창업자를 확대해 고용규모를 증대시켰다기 보다, 주로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혹은 자영업자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형태로 고용의 형태만 변화

< 진입자의 기존 종사상지위(2013) >

	진입자 수	비중
취업자	415	71.4
임금근로자	284	48.7
자영업자	132	22.7
비취업자	166	28.6
전체	58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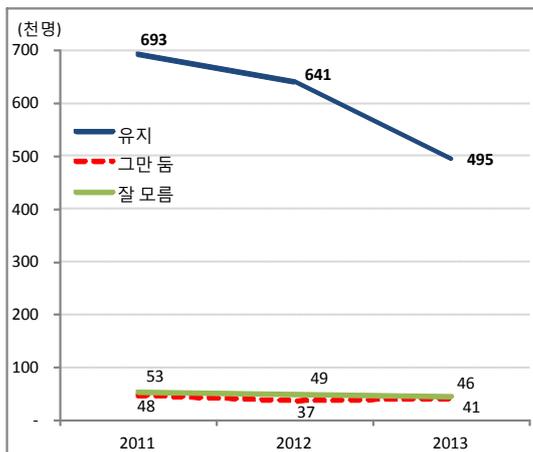
< 임금근로자→자영업 진입자 연령 분포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이용 추계.
 주 : 임금근로자는 2012년 청년층이 359만명, 30대 480만명, 40대 466만명, 50대 이상이 468만명임.

- (진입자의 향후계획) 현 사업을 그만 둘 계획을 하는 신규 진입자는 사업부진, 임금근로자 전환, 사업 업종전환 등의 이유로 퇴출할 계획
 - 창업한지 1년도 안되어 향후 사업을 그만 두거나 계획이 불투명한 자영업자는 2013년 약 8.7만명에 이르고 신규진입자 중 15%에 달함
 - 시작한지 1년이 안된 자영업 진입자 중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1년 69.3만명에서 2012년 64.1만명, 2013년 49.5만명으로 감소세
 - 2011년에는 신규 진입자중 87.3%가 사업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2013년에는 85.0%로 축소됨
 - 창업한지 1년이 안되어 사업을 그만 둘 계획을 하는 자영업자의 주된 이유는 '사업부진'이며, 임금근로자 전환, 사업 업종전환 등의 사유가 뒤를 이음
 - 신규 진입자가 현 사업을 그만 둘 계획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사업부진으로, 그 비중이 2011년 19.3%, 2012년 24.6%, 2013년 39.5%로 확대
 - 임금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 진입자도 상당한 비중(12.0%)을 차지
 - 그 밖에도, 현 사업에서 더 나은 업종으로 전환(15.3%)하거나, 적성에 맞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2.7%) 및 사업구상 및 자기계발(7.5%)을 위해 퇴출할 계획이 있음

< 진입자의 향후 계획 >



< 진입자의 현 사업을 그만 둘 이유 >

	(%)		
	2011	2012	2013
현 사업에서 더 나은 업종으로 전환	11.8	25.9	15.3
적성에 맞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	12.6	5.2	2.7
임금근로 취업을 희망	14.0	2.4	12.0
사업부진	19.3	24.6	39.5
개인사유 (건강, 가족 돌봄 등)	34.8	41.8	25.3
사업구상 및 자기계발	7.5	0.0	5.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이용 추계.
 주 : 우측 표는 향후 현 사업을 그만 둘 계획이 있는 진입자를 대상으로 함.

3. 시사점

- 자영업 진입자 및 퇴출자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준비된 창업'을 확대
 - 청년 창업자 : 경영 노하우를 충분히 교육받고, 관련 산업에 대한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실패 및 시행착오를 축소
 - 특히, 창업을 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청년들이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30~40대 자영업자 : 산업에 대한 이해 및 창업 업종에 대한 노하우 교육 확대
 - 해당 산업의 경쟁강도, 수익성, 성장성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고, 창업 업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창업교육 마련
 - 재취업 일자리 확대, 재취업 기술·경영 교육, 인력부족 기업과의 연결 등을 통해 재취업환경을 개선하여 중년층의 비자발적 창업을 축소
 - 베이비붐세대에 집중되어 있는 자영업 대책의 정책대상이 확대될 필요
 - 50대 이상 자영업 창업자 :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재취업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급한 비자발적 창업으로 인도 되지 않도록 정책 마련
 -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는 업종으로 성급하게 창업하지 않도록 방향 제시
 -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에 실패해 비자발적으로 창업하는 진입자를 축소시킬 필요
 - 임금근로자→자영업 전환자 : 퇴직 후 창업을 계획할 경우, 산업 및 경영 노하우를 충분히 습득하여 '준비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제공
 - 퇴직 후 성급하게 창업하게 됨에 따라 생활밀접형 자영업 업종의 과밀화·과다 경쟁에 따라 폐업을 겪게 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음
 - 과도한 규모로 창업한 자영업자 : 과도하게 큰 규모로 창업하는 것보다 적절한 규모로 시작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할 필요
 - 소규모 창업 성공사례 및 노하우 교육을 확대하고,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 창업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방향성 제시

○ 퇴출을 고려하는 자영업자의 유형별로 적합한 정책 마련

- **사업전환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 '준비된 창업'을 통해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공
 - 미래 유망업종 선정 및 경영노하우 등의 창업교육 사업 확대
 - 특화된 업종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형 자영업 창업으로 인도할 필요

-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대상의 필요에 부합하는 취업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
 -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려고 계획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재취업을 안내하고, 노동 수요자에게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를 강화

- **'사업부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퇴출자** : 퇴출하는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마련
 - 특히,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자영업 퇴출자들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가교일자리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안내

김광석 선임연구원(2072-6215, gskim@hri.co.kr)

8) 자영업자에게 퇴출에 따른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부처 간 협업사업(중소기업청).